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6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16일 (음력 8월 27일) 월요일

## 광주도시철도 2호선 본궤도 오른다

광주시가 최대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차량 시스템 납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지 한달 만에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초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 납품과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그럴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5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우진산전과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제작구매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792억원으로, (주)우진산전의 투찰금액과 동일하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년2개월간이며, 차량 72량과 검수시스템을 일괄 제작하는

광주시 "특혜 시비 차단, 예산 절감 일석이조" 자평  
부실-안전성 우려에 "시스템적으로 그럴 여지 없다"

방식이다.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차량은 총 86편으로, 1편당 2량으로 운행되며, 1편당 수송 가능 인원은 임석을 포함해 154명이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침단~수암~시정 구간 41.9km 길이의 순환선으로, 4분 단위로 1편(2량)씩 운행된다.

시는 공정경쟁을 통해 차량형식을 결정

하기 위해 지난 4월26일 조달청에 차량 제작구매 계약을 의뢰했다. 조달청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 고부비위 업체인 우진산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돼 광주시와 기술협상을 마치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문계약기관인 조달청을 통해 계약절차를 추진해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또 낙찰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져 공개 경쟁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우진 측의 투찰가는 예산 대비 59%에 792억원으로, 55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당초 예상사업비는 차량 구입비 1236억원, 검수시설 110억원이었다.

그동안 다른 지역 경전철 차량 선정은 특정 차량 형식을 먼저 선정 후 단독입찰을 실시, 80~90%의 낙찰률로 수의계약이 이뤄졌으나, 광주시는 차량제작업체가 형식별로 독점구조인 점을 감안 기술력과 가격 경쟁을 통해 차량을 선정키 위해 차량 형식을 결정하지 않고 차량의 규모만 정해 유사 차량 형식의 제작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정방식과 가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결국 예산 절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사업 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분야별 실시절계를 본격 추진해 당초 제시한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1단계 일부 구간을 우선 착공, 2022년에는 1단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저가 낙찰로 부실 납품과 안전성도 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경쟁을 통해 제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저가 입찰 방지로 적정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정방법도 기술평가(정량+정성) 80점에 가격점수 20점을 더한 방식이어서, 그만큼 기술력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도시철도 9호선, 서울메트로 2호선, 부산 1호선처럼 차량제작에 앞서 철도안전법에 따라 감독용역을 실시해 부실 납품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은홍 기자



제3회 영산강 서창들녘 익새축제 광주 서구는 '제3회 영산강 서창들녘 익새 축제'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영산강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분당?

비른장담김무성 의원은 최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유승민 의원을 끌지 설득해도 안 되면 분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과 복지 포퓰리즘 앞에서 아군이 분열돼 무기력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과 통합해야 하는 이유로 "정부는 안보 무능과 복지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아군이 강해야 하는 데 보수 진영이 분열돼 제대로 견제를 못 하고 있다"며 "(보수 아군이)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는 '또 선거에서 자전' 아담으로서 견제 역할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인사들의 측배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유승민



김무성



유승민

## 전남도, 일본·타이완·베트남 등 해외관광객 유치 잔걸음

전남도는 중국의 방한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로 중국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일본, 타이완 등 시장 다변화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9일과 20일에는 각각 베트남 언론인과 중국 인터넷스타(왕홍)가 남도음식문화관광진흥회와 강진 케이팝(K-POP)콘서트 관람 등 주요 관광자원을 취재·홍보한다.

21일부터는 대만크루즈협회와 크루즈전문여행사 사장단 20여 명이 여수 크루즈

상품 개발을 위해 여수와 순천을 방문한다.

전남도는 또 26일부터 31일까지 대만 현지를 방문해 2018년 무안공항-타이베이 노선 개선을 위한 여행사 방문세일즈와 여수 크루즈 기항을 위한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는 중국 상하이와 산에서 개최되는 크루즈박람회 등에서 다국적 크루즈 선사들과의 네트워킹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13일부터 일본 기타큐슈 정기편 운항시점에 맞춰 기타큐슈와 후쿠오카 지역

여행사들의 전남여행상품개발 캠프어를 각각 진행했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일본, 대만, 동남아 등지에서 설명회, 홍보관 운영 등 총 16회에 걸친 현지마케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타이완 전세기 6회 유치로 1000 명이 무안공항으로 입국했고, 타이완과 말레이시아 기업인센터팀 1200명을 유치했다.

특히 해외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과 전남을 잇는 버스자유부어 상품을 총

61회 운행해 지금까지 800여 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이밖에도 일본 크루즈 유치와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 다양한 테마형 상품 운영으로 5000여 명이 전남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성진 전남도 관광과장은 "중국 관광객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으로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 다변화를 계속 추진, 국가별 시장 여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무안공항과 일본, 대만을 잇는 정기편과 여수항을 잇는 크루즈 노선 개설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